제5강 천운영 「명랑」

(1교시)

천운영 「명랑」
『2003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 작품집』

1. 작가연보
1972년 서울 출생.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및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졸업. 2000년 『동아일보』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「바늘」이 당선되어 등단. 2001년 제9회 대산문화재단 문학인 창작지원금 수상.

소설집 『바늘』(2001), 『명랑』(2004)

2. 줄거리
할머니, 며느리(엄마), 딸인 삼대여성이 한 지붕아래 살아간다. 유원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와, 곁방에서 명랑에 의존하며 사는 할머니, 발 관리사 기술을 배우고 용돈을 타 쓰는 딸은 서로를 알게 모르게 의지한다. 폭우가 쏟아지던 밤 딸을 찾아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불어난 계곡물로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할머니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.

4. 시점
일인칭 관찰자 시점 / 일인칭 주인공 시점 교차

5. 문체의 특징
일상 속에서 주인공이 겪는 내면적인 갈등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. 여성 특유의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가 잘 되어 있다.

6. 묘사력
* 시각적 묘사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 내 눈은 향기를 맡은 꿀벌처럼 버선발을 향해 부산한 날갯짓을 한다.
- 달팽이처럼 미끈하고 조그만 발 (207p)
- 그녀의 발은 촉수를 세운 더듬이다. (208p)
- 그녀의 손은 말라비틀어진 빵 같다. 뼈와 핏줄이 드러난 얇은 살갗 위에는 저승꽃이 곰팡이처럼 무리지어 피어 있다. 저승꽃은 주글주글한 가슴패기와 늘어진 목덜미를 지나 광대뼈와 이마까지 줄기를 뻗어 올린다. (208p)
- 무릎을 그러안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꼭 양수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태아 같다. 죽음을 맞으러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, 탄생이전의 따뜻한 양수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. (210p)
- 그녀의 발은 전족을 한 것처럼 작고 위태롭다. 발톱 하나하나는 채 여물지 않은 옥수수의 작은 알갱이 같다. (211p)
- 나는 밤도망을 치는 여편네처럼 (224p)

* 후각적 묘사
- 그녀에게서 나는 늙은이 냄새 또한 죽음을 위장하는 방부제 냄새가 분명하다.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는 채 녹슬지 않은 명랑 가루가 그대로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. 그녀는 죽어서도 썩지 않으리라. 나무뿌리가 관 뚜껑의 틈을 벌리고 그 틈새로 떨어진 흙이 그녀 몸을 덮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리칼은 잔뿌리처럼 쑥쑥 자라날 것이다. (209p)
- 늙은 여자가 내뿜는 담배 냄새는 내가 뿜어내는 냄새보다 좀더 강하고 어둡다. 방치된 지하 창고 같다. 거기서는 생기가 잊혀지고 죽은 쥐가 썩고 노래기가 모이고 먼지가 굳는다. (210p)
- 그녀가 버선을 벗고 발을 씻을 때면 그녀의 발에서는 달착지근한 비린 풋내가 풍기는 듯하다. (212p)
- 가오리 삭히면서 나는 냄새는 어쩐지 노인네 방에서 풍기는 냄새와 닮아있다. 그것은 상하거나 죽어가는 냄새와 다르다. 죽었으나 썩지 않기 위해 제 몸을 삭히는 발효의 냄새 (213p)
- 모기향에서는 사내 냄새가 난다. 그것은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남편의 냄새다. 매우면서도 비릿한,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적당히 섞인 남자의 냄새다. 난 사내 품속을 파고들듯 모기향을 들이 마신다. (218p)
- 엄마에게서는 누린내가 난다. 비에 젖은 개털 냄새, 찬바람에 노출된 가죽 잠바 냄새, 엄마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여자의 냄새가 아니다. 엄마의 목소리가 굵어지면서, 수염이라도 난 것처럼 코밑이 검어지면서부터 풍기기 시작한 그 냄새는, 사내들의 콧바람에서 묻어나오는 역겨운 냄새와 닮아 있다. (222p)
- 숲에서는 짓이겨진 풀냄새가 난다. 죽어가는 것들은 더욱 강한 향을 뿜는다. (223p)
- 나는 그녀를 위해 명랑을 먹는다. 설탕처럼 하얗고 반짝이는 명랑가루에서는 그녀 냄새가 난다. (228p)

(2교시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▲ 죽어가는 냄새 ↔ 살아가는 냄새 혼효
▲ 흰 색 이미지 (명랑가루, 버선, 유분, 발, 약봉지, 머리카락)
흰 색→ 원형상징 (生 / 死)

7. 에피소드 적절성
- 무릎을 그러안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꼭 양수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태아 같다. 죽음을 맞으러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, 탄생이전의 따뜻한 양수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. (210p)
- 나는 늙은이의 눈을 갖고 싶다. 어쩌면 나는 늙은 여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른다. 세월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늙은 여자가 되어 세상을 비껴보고 싶은 것이다. (211p)
- 가오리가 삭으면서 나는 냄새는 노인네 방에서 풍기는 냄새와 닮아 있다. 죽었으나 썩지 않기 위해 몸을 삭히는 발효의 냄새 (213p)
- 이른 아침 할머니의 목욕: 누군가 위에서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. 축축하고 뜨뜻한 물기가 몸에 휘감기는 기분이다. (220p)
- 곱게 빻아진 할머니의 뼛가루를 먹으며 자신 안에 살아있는 할머니를 느낌

8. 제목
'명랑'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의 '명랑'이 아니라 우리네 삶이 신산스럽고 남루하던 시절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흰 가루약을 말한다. 작중 화자인 딸 또한 할머니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할머니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듯 뼛가루를 명랑처럼 찍어 먹음으로써 명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. 즉 이 소설은 삶과 죽음이 관계 맺는 다양한 양상과 그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.

9. 주제
삶과 죽음의 순환미학

▲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일관적으로, 끈질기게 묘사하는 능력이 출중함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